

## 한국어판 죽음태도 척도 개정판(DAP-R)의 타당화\*

오 주 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안 도 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개발된 죽음태도 척도 개정판(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70대의 일반인 60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안한 DAP-R과 죽음불안, 특성불안,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여 한국어판 DAP-R의 요인구조,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DAP-R은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의 5요인 구조를 보였고, 대체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였다. 죽음공포와 죽음회피는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립수용은 이 두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도피수용과 접근수용은 죽음공포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달리, 죽음공포와 중립수용에서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죽음공포가 높게 나타났다. 도피수용은 특성 불안과 정적 상관을,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바,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자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 자살 위험과의 관련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죽음태도 척도 개정판(DAP-R), 죽음태도, 죽음공포, 중립적 죽음수용, 도피적 죽음수용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도연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조교수 /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8225 / E-mail: psydooyoun@hs.ac.kr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인간이라면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프랑스 작가 La Rochefoucauld가 “태양이나 죽음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잠언을 남겼듯이 일상에서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 및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Ernest Becker(1973)는 “죽음이라는 관념,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인간이란 동물의 뇌리에 박혀 괴로움을 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인간 활동의 근원이다.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하고자,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부인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자 계획된 것이다”라며 죽음 인식이 초래하는 실존적 불안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reenberg, Solomon 및 Pyszczynski(1986)는 공포 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을 세우, 인간은 죽음의 불가피성이 야기한 불안을 피하고자 자존감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문화적 세계관이 지닌 가치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며, 이에 반하는 의견에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한다.

한편,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에서 나아가 ‘잘 사는 것(well-being)’과 ‘좋은 마무리(well-dying)’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Kübler-Ross(1969)는 생애 말기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로 설명하였다. 이는 ‘질병 중심적’이

며, ‘환자의 죽음을 곧 실패한 결과’로 간주하여 죽음을 회피하게 되는 의료 환경에서, ‘사람(환자) 중심적’이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죽음(준비)교육과 호스피스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죽음을 수용하고 성찰하는 것은 개인에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Charles Dickens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는 꿈에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며 강렬한 불안과 회한을 경험한 후 삶에서 매우 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Victor Frankl 역시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 생활에서 절박한 죽음 위기에서 생생해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인간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의미치료(Logotherapy)를 창안하였다. 수용전념치료(ACT)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value)를 발견하고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묘비명 적기” 활동을 하는 것도, 죽음 성찰이 삶의 의미를 선명히 드러내는 효과를 치료 장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는 점에서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되도록 생각이나 언급을 피하고픈 사건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내세의 행복을 맞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다려지기도 하고, 현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하는 사건이다. 또한,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고, 의미있는 유산을 남겨 기억됨으로써 다른 차원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내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에 죽음을 앞둔 환자나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이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

니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과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죽음대처 척도(Coping with Death Scale; CDS, Bugen, 1981)와 죽음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Wong, Reker & Gesser, 1994)이다. 죽음대처 척도(CDS)는 자신과 타인의 죽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호스피스 교육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반면, 죽음태도 척도(DAP-R)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태도인 죽음공포(fear of death), 죽음회피(death avoidance), 도피수용(escape acceptance), 접근수용(acceptance), 중립수용(neutral acceptance) 등을 폭넓게 측정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Kübler-Ross(196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순서와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Buckman, 1993)과 유사한 관점을 반영한다. 죽음태도 척도는 북미 지역에서 1987년에 죽음공포,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의 4요인으로 개발되었다가 임상 경험을 토대로 1994년에 죽음회피 요인을 추가한 개정판(DAP-R)이 나온 이후, 일본(Kumabe, 2006), 홍콩(Ho, Chan, Chow, Pon, & Ng, 2010), 그리스(Malliarou et al., 2012), 루마니아(Revenco & Iordansescu, 2015), 이란(Asadpour, Sabzevari, Ekramifar, & Bidaki, 2016), 폴란드(Brudek, Sękowski, & Steuden, 2018), 독일(Jansen et al., 2019), 브라질(Machado, Oria, Fernandes, Gouvela, & Silva, 2019), 스페인(Cruzado et al., 2022)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번안, 타당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DAP-R은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5요인으로 개발되었으며, 타당화 연구가 진행된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5요인 구조를 나타내었다(Brudek et al., 2018; Cruzado et al., 2022, Jansen et al., 2019; Malliarou et al., 2012). 그러나 일부 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Clement와 Rooda(2000)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중립수용 요인이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natural part of life)로 보는 요인(6, 14, 24번 문항)과 죽음에 대한 중립적 태도(neutral attitude)를 나타내는 요인(17, 30번 문항)으로 분리된다고 제안했으며, Ho 등(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이운영(2008)의 연구에서 두 문항이 요인구조 불일치(17번)와 낮은 요인부하량(30번) 탓에 중립수용 요인에서 제거되었는데, 이 두 문항은 '~도 아니고 ~도 아니다(neither ~ nor ~)'라는 표현의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요인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Ho 등(2010)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접근수용 요인 역시 단일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8. 내가 죽음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세(afterlife)를 믿기 때문이다'와 '31. 나는 사후세계(life after death)를 기대한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은 서구의 종교적 지향과 무관하게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나머지 8개 문항은 기독교(개신교, 천주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신체 기능이 종결되더라도 영혼은 천국이나 실존의 다음 단계에서 지속된다고 여기는지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전형적으로 불교, 도교,

유교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아 미신, 죽음 이후의 심판, 업(karma), 부활에 대해 서양 사람들과는 다른 내세관을 지니므로 요인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죽음태도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Bellali 등(2018)은 7문항으로 구성된 죽음공포 요인 또한 단일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0. 죽음 이후의 삶(내세, 사후생)이라는 주제는 나를 매우 괴롭게 한다'와 '32.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을 걱정한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이 구분된다며 이를 '사후염려(after death concern)'로 명명하였다. 죽음공포 요인이 임종, 죽음, 삶의 종결(finality), 개인의 필멸성(mortality)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면, 사후염려 요인은 죽음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한 표상의 부재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DAP-R은 한 개인이 죽음에 대해 상반되어 보일 수도 있는 다양한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가정하는 프로파일 형태의 척도로, 척도 내 요인 간에도 다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Wong 등(1994)의 원척도 개발 연구를 살펴보면,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요인 간에, 그리고 접근수용과 도피수용 요인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접근수용은 죽음공포, 죽음회피라는 두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중립수용도 죽음공포 요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죽음태도 요인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었다. Wong 등(1994)의 연구에서 노년 집단은 청년 집단에 비해서 죽음공포는 낮게, 중립수용과 도피수용은 높게, 중년 집단에 비해서는 접근수용을 높게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죽음회피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죽음회피를 높게, 접근수용과 도피수용은 낮게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여성이 죽음공포를 더 높게 지니지 않았으며, 중립수용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죽음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DAP-R을 사용한 논문이 몇 편 있지만, 일부 요인만 발췌해 한국어로 바꾸어 사용하거나(김지현, 2008), 특정 지역 노인이나 여성 간호사만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표집의 대표성이 부족(김향, 2013; 이운영, 2008)하고, 예비타당화 작업에서 임의로 문항을 삭제하여(김향, 2013) 문항 선정의 근거가 부족한 등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다양한 연령대의 편향되지 않은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DAP-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요인이 분리된다는 의견이 반복 제기된 중립수용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DAP-R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다. 척도가 내용적 일관성이나 시간적 안정성 면에서 신뢰로운지, 척도의 각 요인이 서로 다른 죽음태도를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DAP-R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한국인 표본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죽음태도 하위 요인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한 종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의 MS패널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이메일을 통해 모집 공고 및 연구 설명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6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309명의 자료를 모은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300명의 자료를 2차로 수집하였다. 2차 수집에서는 원척도 개발 당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청년 18~29세, 중년 30~59세, 노년 60~79세로 연령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별로 100명씩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4주 후에 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2차 참여자 중에서 연령 집단별 25명, 총 75명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한 줄 굵기, 중심화 경향, 극단반응양식으로 나타난 불성실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Van Vaerenbergh & Thomas, 2013), 탐색적 요인분석에 297명, 확인적 요인분석에 295명, 재검사 신뢰도 확인에 7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다(IRB No. 1808/003-027, IRB No. 1908/ 003-018).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표본 1( $N = 297$ )은 남성 146명, 여성 151명, 평균연령 44.42세(표준편차 13.63), 연령 범위는 20~77세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표본 2( $N = 295$ )는 남성 127명, 여성 168명, 평균연령은 44.17세(표준편차 16.96), 연령 범위는 19~79세였다. 청년 집단은 99명(남성 30, 여성 69), 평균 연령 24.97세(표준편차 2.84), 중년 집단은 98명(남성 46, 여성 52), 평균 연령 43.61세(표준편차 8.21), 노년 집단은 98명(남성 51, 여성 47), 평균 연령 64.13세(표준편차 4.15)였다. 참

가자의 종교는 종교없음 167명(56.2%), 불교 41명(13.8%), 개신교 60명(20.2%), 천주교 25명(8.4%), 기타 2명(0.7%)으로 가장 최근 이루어진 『인구주택총조사(2015)』의 전체 한국인 종교 분포(종교없음 56.0%, 불교 15.7%, 개신교 19.7%, 천주교 8.0%, 기타 0.6%)와 유사하도록 모집하였다.

**측정도구**

**죽음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개인이 죽음에 대해 갖는 다양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Wong 등(1994)이 개발하였다.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는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7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Wong 등(199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죽음공포 .86, 죽음회피 .88, 도피수용 .84, 접근수용 .97, 중립수용 .88이었으며,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죽음공포 .71, 죽음회피 .61, 도피수용 .83, 접근수용 .95, 중립수용 .64였다. 가능한 DAP-R 점수의 범위는 32~224점이며,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태도를 많이 지녔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죽음공포 .89, 죽음회피 .85, 도피수용 .87, 접근수용 .93, 중립수용 .72였으며,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죽음공포 .80, 죽음회피 .67, 도피수용 .73, 접근수용 .85, 중립수용 .60이었다.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

죽음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고자 Templer(1970)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

구에서는 고효진, 최지옥 및 이홍표(2006)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으나,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한 후속연구들이 많았고 고효진 등(2006)도 한국어판 DAS를 5점 척도 형식으로 타당화하였다. 원척도에서 내적합치도 .76, 검사-재검사 신뢰도 .83이었고, 고효진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0이었다. 가능한 죽음불안 척도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을 두려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9였다.

#### **특성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STAI-T)**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을 특성(trait)과 상태(state)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197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특성불안이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차로 인한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이며 의식적인 불안상태로 긴장과 염려의 느낌을 지속적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 40문항으로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만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 상에 평정하게 된다. 김정택(1978)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특성불안 .86, 상태불안 .87로 나타났다. 가능한 STAI-T 점수의 범위는 4~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특성불안의 적합치도는 .90

이었다.

####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전병제(197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변안 당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지 않았으나,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및 이상민(2009)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학령기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75~.87이었다. 총 10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게 된다. 가능한 RSES 점수의 범위는 5~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2였다.

#### **심리적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Ryff(1989)가 개발한 척도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라는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Ryff(1989)는 이 여섯 측면 삶의 질의 총합을 심리적 안녕감으로 명명하고, 삶의 만족도(인지적 요인)와 정서 상태(정서적 요인)를 나타내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구분하였다.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명소, 김혜원 및 차경호(2001)의 연구에서 선별한 4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게 된다. 김명

소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아수용 .76, 긍정적 대인관계 .72, 삶의 목적 .73, 개인적 성장 .70, 자율성 .69, 환경통제 .66이었다. 가능한 PWBS 총점의 범위는 46~276점이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력, 자율성, 개인적 성장 요인은 8~48점,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요인은 7~42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아수용 .84, 긍정적 대인관계 .82, 삶의 목적 .77, 개인적 성장 .71, 자율성 .73, 환경통제 .70이었다.

#### 절차

본 연구에서 한국어판 DAP-R의 번안 및 타당화는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원척도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척도 개발자인 Paul T. P. Wong로부터 한국어 번안 허가를 받았다(2018년 4월 18일). 이후 연구자가 1차 번안을 진행하고 이를 임상심리 박사과정 학생 2인이 취합하여 검토하여 일부 수정한 다음, 미국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국내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중으로 영어-한국어에 능통한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이 역번역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다른 임상심리 전문가와 연구자가 역번역 결과를 검토하여 한국어 번안본을 최종 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DAP-R에 대해 다양한 요인 구조가 제안되었기에(5요인 모형; Wong et al., 1994, Brudek et al., 2018, 6요인 모형; Bellali et al., 2018, Clements & Rooda, 2000, 7요인 모형; Ho et al., 2010), 한국어판 DAP-R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본 1(N = 297)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정된 요인 구조와 문항에 대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2(N = 295)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고,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변별 및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DAP-R 하위요인과 죽음불안 척도, 특성불안 척도,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자료분석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전에 문항의 정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표본 각 문항의 왜도의 범위는 -1.18 ~ 0.83(평균 0.10, 표준편차 0.45), 첨도의 범위는 -2.00 ~ 1.62(평균 -0.52, 표준편차 0.76)이고,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 각 문항의 왜도의 범위는 -1.31 ~ 0.93(평균 0.06, 표준편차 0.50), 첨도의 범위는 -1.93 ~ 2.18(평균 -0.49, 표준편차 0.92)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의 한 개 문항을 제외하면(문항 21의 첨도), 가장 엄격한 기준인 왜도와 첨도 각각 절대값 2 이내의 범위에 있을 것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George & Mallery, 2010).

탐색적 요인분석은 각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요인 수를 결정한 후, 서로 다른 네 가지 요인 구조에 따라 목표회전을 적용하였다(Browne, 2001). 이후 각 모형에 대하여 Bryne(1998)에 따라 CFI, TLI, RMSEA와 SRMR와 같은 증분적합도 및 절대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최종 요인의 결정은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각 요인 모형의 RMSEA 90% 신뢰구간 하한값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한 결과(Preacher, Zhang, Kim & Mels, 2013)와 목표회전의 결과로 도출된 요인 부하량의 해석 가능성, 그리고 평행분석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결정된 요인 수와 선행 연구에 따라 목표회전에 기술된 요인 및 문항 구조의 타당성을 별도의 표본에서 검증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은 최대우도법(robust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요인분석 소프트웨어는 Mplus 7.0을 사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13).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로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척도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7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어판 DAP-R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

해 표본 1( $N = 297$ )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원자료의 고유값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무선자료의 고유값을 비교하여, 원자료의 고유값이 더 큰 것을 요인의 수로 결정하는 평행분석을 실시한 결과(그림 1) 5요인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우도법(robust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해 기존 연구자들이 제기했던 5요인(Wong et al., 1994), 6요인 a(Clement & Rooda, 2000), 6요인 b(Bellali et al., 2018), 7요인(Ho et al., 2010) 모형의 적합도 지수(표 1)와 각 모형의 요인부하량(표 2)을 구하여 살펴보았다. 표 1을 보면, 어떤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5요인(RMSEA, SRMR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간명한 모형), 6요인(BIC 기준; Raftery, 1995), 또는 7요인(RMSEA, CFI, TLI) 등으로 적절한 요인 수가 달라진다.

그러나, 표 2의 요인부하량 행렬을 보면 6요인 a, b 모형과 7요인 모형에서 주요인으로 설정된 요인보다 다른 요인에 더 큰 부하량이 실리는 등 요인 구조에 모순이 존재하고, 2문항으로만 별도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임상적으로 필요한지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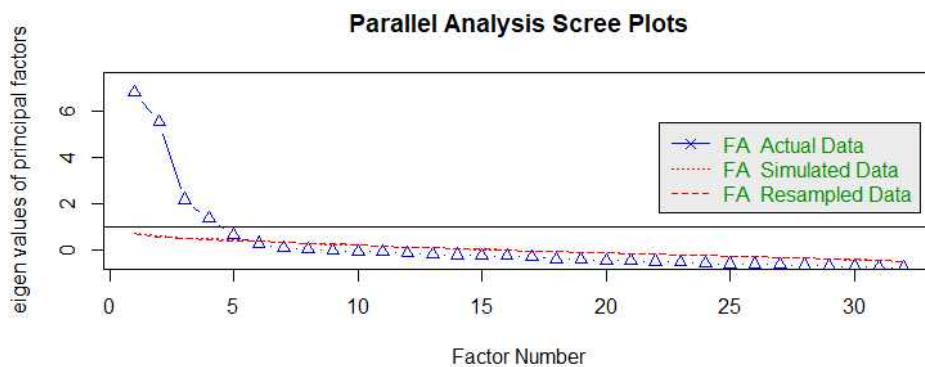


그림 1. K-DAP-R의 탐색적 요인분석 자료의 평행분석 결과

표 1. K-DAP-R의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별 적합도 지수 (N = 297)

	Chisq( $\chi^2$ ) (df)	BIC	RMSEA (lb, ub)	CFI	TLI	SRMR
4요인 모형 적용 - FD, DA 단일요인으로 병합	1073.225 (374)	31629.643	.079 (.074, .085)	.877	.837	.044
5요인 모형 적용 - Wong 등(1994)의 원척도 모형	771.106 (346)	31486.949	.064 (.058, .070)	.925	.893	.030
6요인 모형(a) 적용 - Clement와 Rooda(2000)의 모형	606.073 (319)	31475.647	.055 (.048, .062)	.950	.922	.024
6요인 모형(b) 적용 - Bellali 등(2018)의 모형	606.373 (319)	31475.647	.055 (.048, .062)	.950	.922	.024
7요인 모형 적용 - Ho 등(2010)의 모형	498.309 (293)	31515.920	.049 (.041, .056)	.964	.939	.020

해보았을 때, 5요인 모형은 TLI 지수가 다소 낮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이고(Hu & Bentler, 1999), 죽음에 대한 거부적 태도(공포, 회피)와 수용적 태도(도피, 접근, 중립)를 구분한 척도 개발 의도와도 가장 부합한다고 여겨졌다. 이에 한국어판 DAP-R의 요인수를 최종적으로 5개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ong 등(1994)이 원척도 개발시에 제안했던 5요인 모형의 경우, 중립수용 요인의 문항인 17번(‘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반기지도 않는다’)이 죽음공포에 교차부하된 것을 제외하면 요인 구조상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교차부하 문제는 6요인a, 6요인b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lement와 Rooda(2000)가 제안했던 6요인a 모형의 경우, 중립수용에서 ‘NA2: 중립적 태도’ 요인의 문항인 17번과 30번의 요인부하량이 오히려 ‘NA1: 삶의 일부분’ 요인에서 더 크고,

5요인 모형에서의 부하량(.43, .53)에 비해 더 작게(.30, .21) 추정되었다. 이는 Clement와 Rooda(2000)가 17, 30번 문항을 별도 요인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결과(.71, .80)와 다르다. 따라서 중립수용을 두 요인으로 나누게 되면 모형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적합도 지수만 부풀려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Bellali 등(2018)이 제안했던 6요인b 모형의 경우, 죽음공포(FD) 요인에 속한 20번과 32번의 요인부하량(.30, .50)이 요인 구조가 의도한 대로 ‘FD2: 막연한 사후염려’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FD2 요인의 분리를 제안한 Bellali 등(2018)의 결과(.73, .76)에 비해서 너무 작게 추정되었고, 32번 문항은 FD1(.41)에도 교차부하되었고, 20번 문항 역시 어떠한 요인구조에서도 여러 요인에 교차부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 문항을 통해 FD2 요인을 해석하고 프로파일로 사용하는 6요인b 모형의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Ho 등(2010)이 제안했던 7요인 모형의 경우, 접근수용(AA)에서 ‘AA1: 종교적 내세와 영혼

표 2. K-DAP-R의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 별 요인 구조 (N = 297)

5요인 (Wong et al., 1994)		6요인 <sup>a</sup> (Clement & Rooda, 2000)		6요인 <sup>b</sup> (Bellali et al., 2018)		7요인 (Ho et al., 2010)					
FD	1	.45 <sup>***</sup>	1	.35 <sup>***</sup>	FD1	1	.59 <sup>***</sup>	1	.55 <sup>***</sup>		
	2	.69 <sup>***</sup>	2	.62 <sup>***</sup>		2	.72 <sup>***</sup>	2	.89 <sup>***</sup>		
	7	.65 <sup>***</sup>	7	.66 <sup>***</sup>		7	.50 <sup>***</sup>	7	.79 <sup>***</sup>		
	18	.71 <sup>***</sup>	FD	18	.70 <sup>***</sup>	18	.57 <sup>***</sup>	FD	18	.57 <sup>***</sup>	
	20	.35 <sup>***</sup>	20	.42 <sup>***</sup>	21	.50 <sup>***</sup>	20	.38 <sup>***</sup>			
	21	.72 <sup>***</sup>	21	.78 <sup>***</sup>	FD2	20	.30 <sup>**</sup>	21	.69 <sup>***</sup>		
	32	.68 <sup>***</sup>	32	.80 <sup>***</sup>		32	.50 <sup>***</sup>	32	.61 <sup>***</sup>		
DA	3	.54 <sup>***</sup>	3	.58 <sup>***</sup>	3	.58 <sup>***</sup>	3	.52 <sup>***</sup>			
	10	.59 <sup>***</sup>	10	.59 <sup>***</sup>	10	.62 <sup>***</sup>	10	.62 <sup>***</sup>			
	12	.62 <sup>***</sup>	DA	12	.64 <sup>***</sup>	DA	12	.66 <sup>***</sup>	DA	12	.69 <sup>***</sup>
	19	.78 <sup>***</sup>	19	.77 <sup>***</sup>	19	.80 <sup>***</sup>	19	.84 <sup>***</sup>			
	26	.75 <sup>***</sup>	26	.72 <sup>***</sup>	26	.76 <sup>***</sup>	26	.73 <sup>***</sup>			
EA	5	.64 <sup>***</sup>	5	.65 <sup>***</sup>	5	.65 <sup>***</sup>	5	.70 <sup>***</sup>			
	9	.81 <sup>***</sup>	9	.80 <sup>***</sup>	9	.80 <sup>***</sup>	9	.77 <sup>***</sup>			
	11	.84 <sup>***</sup>	EA	11	.84 <sup>***</sup>	EA	11	.84 <sup>***</sup>	EA	11	.82 <sup>***</sup>
	23	.77 <sup>***</sup>	23	.78 <sup>***</sup>	23	.78 <sup>***</sup>	23	.78 <sup>***</sup>			
	29	.68 <sup>***</sup>	29	.68 <sup>***</sup>	29	.68 <sup>***</sup>	29	.70 <sup>***</sup>			
AA	4	.72 <sup>***</sup>	4	.73 <sup>***</sup>	4	.73 <sup>***</sup>	AA1	4	.62 <sup>***</sup>		
	8	.50 <sup>***</sup>	8	.51 <sup>***</sup>	8	.51 <sup>***</sup>		8	.53 <sup>***</sup>		
	13	.74 <sup>***</sup>	13	.76 <sup>***</sup>	13	.76 <sup>***</sup>		13	.70 <sup>***</sup>		
	15	.83 <sup>***</sup>	15	.85 <sup>***</sup>	15	.86 <sup>***</sup>		15	.77 <sup>***</sup>		
	16	.87 <sup>***</sup>	AA	16	.89 <sup>***</sup>	AA		16	.89 <sup>***</sup>	16	.80 <sup>***</sup>
	22	.42 <sup>***</sup>	22	.39 <sup>***</sup>	22	.37 <sup>***</sup>		22	.21 <sup>**</sup>		
	25	.83 <sup>***</sup>	25	.84 <sup>***</sup>	25	.84 <sup>***</sup>		25	.81 <sup>***</sup>		
	27	.66 <sup>***</sup>	27	.66 <sup>***</sup>	27	.65 <sup>***</sup>	27	.59 <sup>***</sup>			
	28	.90 <sup>***</sup>	28	.89 <sup>***</sup>	28	.88 <sup>***</sup>	AA2	28	.32 <sup>**</sup>		
	31	.85 <sup>***</sup>	31	.83 <sup>***</sup>	31	.82 <sup>***</sup>		31	.41 <sup>***</sup>		
NA	6	.65 <sup>***</sup>	NA1	6	.65 <sup>***</sup>	6	.65 <sup>***</sup>	NA1	6	.63 <sup>***</sup>	
	14	.81 <sup>***</sup>		14	.78 <sup>***</sup>	14	.81 <sup>***</sup>		14	.77 <sup>***</sup>	
	17	.43 <sup>***</sup>	24	.81 <sup>***</sup>	NA	17	.47 <sup>***</sup>	24	.74 <sup>***</sup>		
	24	.87 <sup>***</sup>	NA2	17	.30 <sup>**</sup>	24	.87 <sup>***</sup>	NA2	17	.54 <sup>***</sup>	
	30	.53 <sup>***</sup>		30	.21 <sup>**</sup>	30	.56 <sup>***</sup>		30	.56 <sup>***</sup>	

\*\*  $p < .01$ , \*\*\*  $p < .001$ , FD = 죽음공포, DA = 죽음회피, EA = 도피수용, AA = 접근수용, NA = 중립수용

표 3. K-DAP-R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죽음공포 Fear of Death; FD (7문항)	
1.	죽음이 암울한 일이라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언젠가 나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7.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심란하다
18.	나는 죽음에 대해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20.	죽음 이후의 삶(내세, 사후생)이라는 주제는 나를 매우 괴롭게 한다
21.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나를 두렵게 한다
32.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을 걱정한다
죽음회피 Death Avoidance; DA (5문항)	
3.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한다
10.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12.	나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애를 쓴다
19.	나는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26.	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CFA에서 삭제됨)
도피수용 Escape Avoidance; EA (5문항)	
5.	죽음은 내 모든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9.	죽음은 이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한다
11.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출해준다
23.	나는 죽음을 현세에서 겪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본다
29.	나는 죽음을 삶의 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CFA에서 삭제됨)
접근수용 Approach Acceptance; AA (10문항)	
4.	죽은 후에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8.	죽음은 궁극적 만족이 존재하는 곳에 진입하는 일이다 (CFA에서 삭제됨)
13.	나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15.	죽음은 신과의 결합이자 영원한 행복이다
16.	죽음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한다
22.	나는 죽은 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회를 기대한다 (EFA에서 삭제됨)
25.	나는 죽음을 영원하고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 통로라고 본다
27.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경이로운 일이다 (CFA에서 삭제됨)
28.	내가 죽음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세를 믿기 때문이다
31.	나는 사후세계를 기대한다
중립수용 Neutral Acceptance; NA (5문항)	
6.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사건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14.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17.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반기지도 않는다 (EFA에서 삭제됨)
24.	죽음은 삶의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30.	죽음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신념' 요인의 문항인 22번의 부하량이 'AA2: 비종교적 내세에 대한 믿음' 요인에서 .354로 더 크게 나타나고, 원래 속한 요인 AA1에서는 .21로 지나치게 낮았다. AA2 요인의 문항인 28번과 31번 역시 원래 요인에 대한 부하량 (.32, .41)에 비해 AA1 요인에서 (.72, .61)로 더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AA2를 별도 요인으로 제안한 Ho 등(2010)의 연구 결과(.78, .60)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았다. 따라서 7요인 모형은 한국어판 척도의 요인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분석 단계에서의 문항 선별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한 5요인 모형에서 두 개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NA에 속하는 17번 문항('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반기지도 않는다')은 FD와 NA 요인으로의 유사한 수준의 교차부하가 발생하였고, AA에 속하는 22번 문항('나는 죽은 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회를 기대한다')은 요인부하량이 낮고 공통분산(.20)이 .3보다 작아 해당 문항이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문항을 삭제하였다.

두 번째로, 상기 두 문항을 삭제한 30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비해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낮게 나왔는데, SRMR의 값이 .03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되어 poor fit에 가까운 .08의 값이 보고된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는 적합한 구조 모형의 잔차 행렬의 전반적인 값이 확대되었으며, 해당 표본 자료의 공분산 구조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상하지 못하였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에 적합된 모형의 요인부하량과 잔차 상관행렬을 검토한 결과, 복수의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DA에 속하는 26번 문항('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33로 지나치게 낮았다. EA에 속하는 29번 문항('나는 죽음을 삶의 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AA에 속하는 두 문항 27번 문항('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경이로운 일이다.')과 8번 문항('죽음은 궁극적 만족이 존재하는 곳에 진입하는 일이다')은 각각 표준화된 잔차행렬(상관행렬)에서 잔차가 .2 이상인 값이 12개, 7개, 6개였으며, Mplus에서 계산된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가 30 이상인 교차부하 경로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요인에 대한 설명력 부족 및 교차부하의 가능성으로 인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이 해당 문항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측정 모형에 부적합한 4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26개 문항으로 한국어판 죽음태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 선별이 완료된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26문항 모형과 초기 30문항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모형 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26문항 모형이 선호되었다,  $\chi^2(106, N = 295) = 384.46, p < .001$ . 최종적으로 K-DAP-R은 FD와 AA 요인이 각각 7문항, DA, EA, NA 요인이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진 26문항 5요인 구조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K-DAP-R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N = 295)

	Chisq( $\chi^2$ ) (df)	BIC	RMSEA (lb, ub)	CFI	TLI	SRMR
5요인: 30 items	1033.01 (395)	28749.35	.07 (.07, .08)	.88	.87	.08
5요인: 26 items	648.55 (289)	24914.88	.07 (.06, .07)	.92	.91	.06

표 5. K-DAP-R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295)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죽음 공포 FD	1	1.00	.00	.50***
	2	1.68***	.20	.76***
	7	1.82***	.21	.80***
	18	1.56***	.18	.78***
	20	1.31***	.16	.70***
	21	1.79***	.21	.83***
	32	1.61***	.19	.80***
죽음 회피 DA	3	1.00	.00	.70***
	10	1.34***	.11	.83***
	12	1.31***	.10	.84***
	19	1.02***	.10	.66***
도피 수용 EA	5	1.00	.00	.67***
	9	1.19***	.10	.81***
	11	1.24***	.10	.86***
접근 수용 AA	23	1.19***	.10	.83***
	4	1.00	.00	.70***
	13	1.10***	.09	.75***
	15	1.23***	.09	.90***
	16	1.18***	.08	.88***
	25	1.14***	.08	.87***
중립 수용 NA	28	1.05***	.08	.78***
	31	1.05***	.09	.74***
	6	1.00	.00	.56***
	14	1.22***	.14	.82***
	24	1.16***	.15	.72***
	30	0.85***	.14	.46***

\*\*\* p < .001.

표 6. K-DAP-R의 타당화에 사용된 척도 별 상관 및 기술통계량 (N = 295)

	DAP-R (26 items)					DAS	STAI-T	RSES	PWBS
	FD	DA	EA	AA	NA				
DAP-R									
FD	1.00								
DA	.68***	1.00							
EA	.04	.13*	1.00						
AA	-.08	.01	.28**	1.00					
NA	-.27**	-.21**	.20**	.10	1.00				
DAS	.67***	.42***	.01	-.07	-.19**	1.00			
STAI-T	.18*	.08	.37***	-.04	-.06	.27*	1.00		
RSES	-.11	-.06	-.40***	.08	.11	-.13*	-.69***	1.00	
PWBS	-.15*	-.12	-.44***	.10	.11	-.19*	-.76***	.80***	1.00
평균	3.56	3.39	3.75	3.44	5.37	3.03	2.23	2.85	3.77
표준편차	1.23	1.25	1.38	1.44	0.93	0.51	0.46	0.49	0.54
왜도	.22	.01	.07	.47	-.62	.03	.50	-.58	-.15
첨도	-.58	-.72	-.68	-.31	.42	.41	.28	.41	.22
<i>a</i>	.89***	.85***	.87***	.93***	.72***	.79***	.90***	.82***	.93***
<i>r</i>	.80***	.67***	.73***	.85***	.60***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FD = 죽음공포, DA = 죽음회피, EA = 도피수용, AA = 접근수용, NA = 중립수용, DAS = 죽음불안 척도, STAI-T = 특성불안 척도, RSES =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PWBS = 심리적 안녕감 척도, *a* = Cronbach's alpha, *r* = 4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합치도

K-DAP-R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 5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9, .85, .87, .93, .72로 나타나, 한국어판 DAP-R의 내적 합치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2의 참여자 중 연령 집단별로 25명씩 75명을 모집하여 4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여 7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 .67, .73, .85, .60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표 6 참조).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K-DAP-R의 시간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표본

K-DAP-R의 요인 간의 관계와 변별성, 각 요인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려고 관련된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

시하였다. 먼저 K-DAP-R 요인 중 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요인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고  $r = .68, p < .001$ , 이 두 요인과 중립수용 간에는 부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죽음공포  $r = -.27, p < .01$ , 죽음회피  $r = -.21, p < .01$ . 그리고, 이 세 요인과 죽음불안 척도 DAS, 특성불안 척도 STAI-T, 심리적안녕감 척도 PWBS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DAP-R의 죽음공포 요인은 ‘죽음불안’이라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DAS와 강한 정적 상관  $r = .62, p < .001$ , ‘전반적인 불안 취약성’을 측정하는 SATI-T와 약한 정적 상관  $r = .18, p < .05$ ,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PWBS와는 부적 상관  $r = -.15, p < .05$ 을 보였다. 반면, 죽음회피 요인은 DAS와만 정적 상관,  $r = .42, p < .01$ , 중립수용 요인은 DAS와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19, p < .05$ . 이는 DAP-R의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요인이 죽음을 불안해하는 태도를, 중립수용이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죽음공포와 죽음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각 요인이 원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님을 드러낸다. 또한 죽음공포 요인은 특성불안이라는 부정적 정서에의 취약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만, 죽음회피는 이 두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 것 또한,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함으로써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죽음회피가 죽음공포에 비해 심리적 불편감은 덜 경험한다는 점에서 변별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도피수용 요인은 죽음공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죽음회피  $r = .13, p < .05$ , 접근수용  $r = .28, p < .01$ , 중립수용  $r = .20, p < .01$ . 또한 특성불안 척도인 STAI-T와 정적 상관  $r = .37, p < .001$ , 전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SES와 부적 상관,  $r = -.40, p < .001$ , 심리적 안녕감 척도 PWBS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r = -.44, p < .001$ , 죽음불안 척도 DAS와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었다,  $r = .01, ns$ . 도피수용은 본래 현재의 괴로움을 피하고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측정하고자 구성된 요인인데, 불안에 취약하고,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된 상태와 유의하게 관련된 것은 현재의 괴로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개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죽음공포 요인이나 죽음불안 척도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은 나타나지 않아 죽음을 수용한 결과 죽음공포를 덜 경험하는 태도를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죽음회피 요인과의 정적 상관은 “회피적 태도”를, 접근수용 요인과의 정적 상관은 현재에 비해 죽음 이후가 덜 힘들거나 더 행복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접근수용 요인은 도피수용을 제외한 그 어떤 하위 요인이나 다른 척도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죽음공포  $r = -.08, ns$ , 죽음회피  $r = .01, ns$ , 중립수용  $r = .10, ns$ , DAS  $r = -.07, ns$ , STAI-T  $r = -.04, ns$ , RSES  $r = .08, ns$ , PWBS  $r = .10, ns$ . 따라서 접근수용 요인이 “내세에 대한 기대로 죽음공포를 완화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결과는 DAP-R의 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수용 요인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변별 및 수렴 타

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도피수용 및 접근수용 요인의 경우 변별 및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령, 성별, 종교의 영향

선행 연구에서 연령, 성별, 종교에 따라 죽음태도 요인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죽음태도 척도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 대해서는 집단 간 *t* 검정을 통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일반적인 유의수준 .05를 사용할 경우 집단별 오류율(FWER: familywise error rate)이 증가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인 사후검정 방법인 Bonferroni's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Armstrong, 2014).

먼저, 연령 집단별로 분석한 표 7의 결과를 보면, 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수용에서는 연

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청년 집단의 접근수용 수준은 중년 및 노년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도피수용 또한 노년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한 표 8의 결과를 보면,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나, DAS로 측정된 전반적인 죽음 불안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용의 세 요인-도피, 접근, 중립-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한국인 종교 분포 비율을 적용한 종교에 따른 죽음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접근수용은 종교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요인이었는데, 개신교 집단에서 매우 높게, 종교없음 집단에서 주요 종교집단(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죽음공포는 불교 집단에서 개신교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DAS로 측정된 전반적 죽음불안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나머지 죽음회피, 도피수용, 중립수용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표 7. 연령 집단에 따른 K-DAP-R 요인의 평균 차이 (*N* = 295)

	1	2	3	<i>F</i> (2, 292)	post hoc comparison (Bonferroni corrected)
	청년(18-29세) ( <i>n</i> = 99)	중년(30-59세) ( <i>n</i> = 98)	노년(60-79세) ( <i>n</i> = 98)		
	Mean( <i>SD</i> )	Mean( <i>SD</i> )	Mean( <i>SD</i> )		
FD	3.54(1.25)	3.55(1.23)	3.58(1.24)	0.04	
DA	3.21(1.27)	3.45(1.33)	3.53(1.14)	1.70	
EA	3.50(1.52)	3.70(1.46)	4.05(1.08)	4.01*	1<3*
AA	3.04(1.29)	3.59(1.51)	3.69(1.45)	5.91**	1<2*, 1<3**
NA	5.25(0.95)	5.41(0.97)	5.45(0.88)	1.21	
DAS	3.04(0.48)	3.04(0.50)	3.02(0.55)	0.05	

\* *p* < .05, \*\* *p* < .01, (Bonferroni correction을 한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에만 표시함), FD = 죽음공포, DA = 죽음회피, EA = 도피수용, AA = 접근수용, NA = 중립수용, DAS = 죽음불안 척도

표 8. 성별에 따른 K-DAP-R 요인의 평균 차이 (N = 295)

	남성	여성	student's <i>t</i> -test ( <i>df</i> )
	( <i>n</i> = 127)	( <i>n</i> = 168)	
	Mean( <i>SD</i> )	Mean( <i>SD</i> )	
FD	3.77(1.15)	3.40(1.27)	2.64** (283.27)
DA	3.77(1.18)	3.11(1.24)	4.63*** (277.79)
EA	3.72(1.32)	3.77(1.43)	0.34 (281.79)
AA	3.42(1.40)	3.46(1.48)	0.25 (278.39)
NA	5.40(0.83)	5.35(1.01)	0.53 (291.19)
DAS	2.99(0.47)	3.07(0.53)	1.25 (287.11)

\*\* *p* < .01, \*\*\* *p* < .001, FD = 죽음공포, DA = 죽음회피, EA = 도피수용, AA = 접근수용, NA = 중립수용, DAS = 죽음불안 척도

표 9. 종교에 따른 K-DAP-R 요인의 평균 차이 (N = 295)

	1	2	3	4	5	<i>F</i> (4,290)	post hoc comparison (Bonferroni corrected)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 <i>n</i> = 167)	( <i>n</i> = 41)	( <i>n</i> = 60)	( <i>n</i> = 25)	( <i>n</i> = 2)		
	Mean ( <i>SD</i> )	Mean ( <i>SD</i> )	Mean ( <i>SD</i> )	Mean ( <i>SD</i> )	Mean ( <i>SD</i> )		
FD	3.57 (1.21)	3.93 (1.18)	3.15 (1.22)	3.84 (1.37)	3.71 (.81)	2.93*	2>3*
DA	3.40 (1.17)	3.69 (1.21)	3.08 (1.35)	3.61 (1.48)	3.62 (1.59)	1.77	
EA	3.70 (1.35)	3.48 (1.32)	4.19 (1.51)	3.50 (1.26)	3.25 (1.41)	2.25	
AA	2.72 (1.04)	3.66 (0.96)	5.19 (1.32)	3.70 (0.90)	3.21 (1.31)	58.43***	1<2*, 1<3**, 1<4*, 2<3*, 3>4*
NA	5.36 (0.93)	5.25 (0.93)	5.49 (0.85)	5.56 (0.91)	3.00 (1.41)	4.06**	
DAS	3.03 (0.52)	3.15 (0.41)	2.94 (0.51)	3.11 (0.59)	3.03 (0.14)	1.22	

\* *p* < .05, \*\* *p* < .01, \*\*\* *p* < .001, (Bonferroni correction을 한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에만 표시함. 기타 집단은 참가자가 2명뿐이라 사후검정은 1~4집단을 대상으로만 시행함), FD = 죽음공포, DA = 죽음회피, EA = 도피수용, AA = 접근수용, NA = 중립수용, DAS = 죽음불안 척도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Wong 등(1994)에 의해 개발된 죽음태도 척도 개정판(DAP-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죽음공포, 죽음회피, 도피수용, 접근수용, 중립수용의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 5~7요인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교차부하되거나 다른 요인에 더 큰 부하량을 가져 모형적합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했을 때 죽음공포 7문항, 죽음회피 4문항, 도피수용 4문항, 접근수용 7문항, 중립수용 4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 모형이 한국인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거된 문항을 살펴보면(표 3 참조), 먼저 도피수용 요인에서 제거된 29번 문항(나는 죽음을 삶의 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한다)은 구성 개념에서 볼 때 다른 문항들(5. '모든 괴로움을 끝낼', 9. '끔찍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11.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출', 23. '현세에서 겪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유사한 태도를 측정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별도의 요인이 제안된 바 없어 제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접근수용 요인에서 10문항중 3문항(8. 죽음은 궁극적 만족이 존재하는 곳에 진입하는 곳이다, 22. 나는 죽은 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회를 기대한다, 27.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경이로

운 일이다)이 제거되었다. 이 세 문항은 Ho 등(2010)이 제안한 "AA1, 종교적 내세와 영혼 신념"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AA2. 비종교적 내세와 영혼 신념" 요인이 단 두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할 때, 제거 후 남은 다섯 문항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중립수용 요인에서 제거된 17번 문항(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반기지도 않는다)은 다른 문항들이 모두 중립적인 인식(6.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사건, 14.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 24. 삶의 과정의 일부, 30.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을 측정하는데 비해 '정서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항을 제거한 CFA의 결과도 죽음공포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문항을 제거해도 중립적 태도를 측정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K-DAP-R의 요인 간 상관, 그리고 K-DAP-R의 각 하위 요인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거나 죽음태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요인 간에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두 요인 모두 죽음불안과 정적 상관을, 중립수용 요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죽음회피 요인은 죽음공포 요인에 비해 죽음불안과의 상관이 작았다, Fisher's Z transformation;  $z = 7.21,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죽음회피는 죽음을 피함으로써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태도'라는 척도 개발자 Wong 등(199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공포 요인이 특성불안과 정적 상관을,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 달리, 죽음회피 요인은 둘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DAP-R 개발 당시 죽음회피가 심리적 안

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던 것이나, 죽음회피만을 높게 보고한 사람들도 죽음공포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녕감이 저조하고 실제로는 죽음불안을 경험한다는 Cozzolino, Blackie 및 Meyers(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소 불일치한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를 선택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피하고자 하는 불쾌한 사적 경험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회피의 역설적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었다(Abramowitz, Tolin, & Street, 2000). 따라서 한국어판 DAP-R이 측정하는 죽음회피 태도가 죽음공포 뿐 아니라 특성불안의 상승이나 심리적안녕감의 저하와 관련되는지, 따라서 죽음을 직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피수용 요인은 특성불안과 정적 상관관,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척도 개발시에 Wong 등(1994)이 ‘삶이 괴롭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도피수용 요인으로 명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피수용과 죽음공포 및 죽음불안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났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본 크기가 작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도피수용이 ‘죽음에 심리적으로 준비되어 불안해하지 않고 받아들임’이라는 ‘수용’적 특성보다 ‘죽음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재의 삶에서 탈출’하는 ‘도피’적 특성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겠다. 이러한 도피적 죽음 수용 태도는 존엄사와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과 같은 생애 말기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관련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접근수용 요인은 도피수용 요인과만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나머지 K-DAP-R 하위 요인이나 관련 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전혀 보이지 않아, 죽음공포, 죽음회피 요인 및 죽음불안과의 뚜렷한 부적 상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냈다. 본래 접근수용은 종교가 제공하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세를 기대하며 내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태도(Dezutter et al., 2008; Wong et al., 1994)를 일컫지만, 본 연구에서 종교를 지녔다고 보고한 참여자들-특히 개신교 집단의 높은 접근수용 점수는 죽음과 관련된 종교의 교리를 인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반영했을 뿐,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죽음 관련된 정서적 불편감의 완화나 심리적 안녕감의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에 는 죽음에 배타적이고 거부적인 한국 문화가 종교 교리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립수용 요인은, 죽음공포 및 죽음회피 요인, 죽음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선행연구와 달리 자존감이나 삶의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인이 죽음의 불가피성(mortality)을 인정할 때에만 자기실현(self actualization)이 가능하다는 인본주의 및 실존주의 심리학의 입장(Feifel, 1990; Maslow, 1968), 그리고 자기실현을 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제거할 수 있으며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Frankl(1965)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중립수용 요인을 구성하는 4개의 문항을 통해 이런 성숙한 실존적 태도를 타당하게 측정하기 어려웠거나, 죽음에 배타적이지만

자살율이 높은 한국 문화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립수용이 긍정적 변인들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연령에 따른 차이의 경우, 노년 집단은 청년 집단에 비해 도피수용, 접근수용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수용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노년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해 죽음공포가 낮고 중립수용이 높았던 선행 연구(Wong et al., 1994)의 결과나 노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 과거의 삶과 죽음의 실체를 수용하는 것(Erikson, 1963)이라는 주장과도 사뭇 다르다. 생애 주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연령대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죽음에의 근접성과 노출 빈도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는데(Kastenbaum, 1979), 과거와 달리 청년 집단이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 자살, 사고, 소외 등이 유발한 죽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한편, 노년 집단이 청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도피수용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노인자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령집단을 1994년 원척도 개발시와 동일하게 청년 18-29세, 중년 30-59세, 노년 60-79세로 분류하였는데, 현재 정부의 생애주기 구분이 청년 19-29세, 중년 30-49세, 장년 50-64세, 노년 65세 이상이고, 사회적 독립은 늦어지고 수명은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청년은 34세까지, 노년은 70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가 연령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

할 필요가 있겠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요인 모두 남성이 더 높았으나, 나머지 세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ong 등(1994)의 연구에서 남성은 죽음회피 요인에서, 여성은 도피수용과 접근수용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이고 죽음공포와 중립수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제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수준이 높고(Conte, Weiner & Plutchik, 1982; Pollak, 1979), 이는 비서구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McMordie & Kumar, 1984)라고 알려졌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의 죽음불안이 더 높다는 소수의 연구(Cole, 1978; Robinson & Wood, 1984)를 지지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남성 참여자들이 죽을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다(남성 55.7%, 여성 39.1%)는 응답을 더 많이 했는데,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에의 빈번한 노출이 죽음공포 태도와 관련된다(Linley & Joseph, 2005)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죽음불안 척도 DAS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죽음불안 척도가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수술, 암, 통증, 전쟁, 시체, 시간의 빠른 흐름)에 대한 불안을 광범위하게 측정해 혼입 변인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죽음에 대해 지닌 다양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존에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나 공포, 죽음에 대한 대처 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여럿 있으나, 각 척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념의 초점

은 상이다. 갑작스럽게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을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시체나 사후 신체의 부패와 관련된 공포, 사별의 고통을 겪을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임종과 사별을 둘러싼 포괄적인 두려움을 측정하거나(예: 죽음불안 척도, DAS), 죽음준비 교육 이후 임종이나 장례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지니게 된 지식의 양과 대처 효능감을 측정하기도 한다(예: 죽음대처 척도, CDS). 그러나 DAP-R은 “죽음” 자체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이 중요한 실존적 사건에 대해 공포를 경험하거나(죽음공포) 다루지 않으려 피하는지(죽음회피), 죽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죽음을 바라는 것인지(도피수용), 사후에 그리운 이들과의 만남, 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기꺼이 맞이하는지(접근수용),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인지(중립수용) 그 태도를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도피수용 요인이 부적응적 심리상태와 뚜렷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피수용이 높고 죽음공포 및 죽음회피가 낮다면, 이는 자살 위험을 알리는 지표일 수 있다. 대표적 자살연구자 Joiner(2005)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PTS)에 따르면, 자살은 1) 소속욕구의 좌절, 2) 주변에 짐이 된다는 인식, 3) 자살 실행력의 세 요소가 필요한데, 자살 실행력은 a)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와 b) 통증감내력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1)과 2)는 삶의 고통의 가중을 의미하고, 이는 도피수용 태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3-a)는 낮은 죽음공포 및 죽음회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K-DAP-R의 세 하위 요인은 자살 위험 선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한 죽음공포와 불안이 질병불안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의 기저에 존재하는 범진단적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정신병리의 치료에 있어 환자가 호소하는 표면적인 증상의 발생에 죽음공포가 나타내는 실존적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겠다.

둘째, K-DAP-R은 병리적 측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임종이나 죽음을 자주 접하는 노인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경찰소방직 종사자들을 위한 죽음대처교육 뿐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하는 일반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시에도, 참가자의 죽음태도를 측정하고 교육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을 확인하고 교육 후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내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학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에 한국인 전체 집단과 유사한 종교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인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죽음 관련 연구가, 보건의료직과 같은 특정 직업군이나 청년 혹은 노인과 같은 특정 연령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이를 다른 연령대의 일반인에게 적용하기가 조심스러웠기에, 본 연구를 통해 일반인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죽음태도에 대해 가능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죽음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K-DAP-R 각 요인, 특히 접근수용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접근

수용이 실제로 영성과 종교성을 반영하는지, 중립수용이 실제로 실존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태도를 나타내는지, 도피수용 및 죽음회피가 경험적 회피 경향이나 대처 양식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전반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영향을 통제된 상황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외 리서치 기관 응답자들은 만 18세 이상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용이한 집단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한국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따라서 향후 참여자 모집 시에는 모집 경로와 참여자 다양성 확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연령대 모집,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연령집단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조사시 참여자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죽음에 빈번히 노출되는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직 종사자들의 경우 죽음태도가 정신건강과 직업적 소진(burn out)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상기 제한점을 지니지만, 개인이 죽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태도를 측정하는 K-DAP-R이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년 후인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통한 장수(長壽) 보다는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DAP-R은 개인이 지닌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파악하고, 죽음에 비추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첫 걸음을 내딛는데 잘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K-DAP-R을 실시하고 해석함에 있어, 중립수용 요인이 죽음이라는 실존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접근수용 요인이 내세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반영하는데 그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도피수용이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 죽음으로 도피하려는 태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살 위험 파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불어 노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가 점차 죽음을 수용해감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인데, 한국 노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태도보다는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노인 집단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존적 안녕감을 경험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후속 연구에도 K-DAP-R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효진, 최지욱, 이홍표 (2006).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15-328.
- 김동배, 김성연, 김성웅, 김세진, 박광덕, 박은영, ... 채수진 (2009). 이제는 죽음을 이야기하자.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 (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

- 음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향 (2013).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운영 (2008). Wong의 죽음태도 척도의 타당화.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홍표, 이홍석, 고효진, 김교현 (2005). 다차원적 죽음불안의 타당화 및 비교문화적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95-413.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1), 107-130.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서울, 한국심리학회.
- 홍영선 (2012). 연명치료 중지와 완화의료.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12), 1188-1192.
- Abramowitz, J. S., Tolin, D. F., & Street, G. P. (2000). Paradoxical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A meta-analysis of controlled studies.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1, 683-703.
- Aday, R. (1984). Belief in afterlife and death anxiety: correlates and comparisons.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15, 67-75.
- Armstrong, R. A. (2014). When to use the Bonferroni correction. *Ophthalmic and Physiological Optics*, 34(5), 502-508.
- Asadpour, M., Sabzevari, L., Ekramifar, A., & Bidaki, R. (2016). The attitude of medical students toward death: A cross-sectional study in Rafsanjan. *Indi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22, 354-361.
-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 Bellali, T., Giannopoulou, I., Tsourti, Z., Malliarou, M., Sarafis, P., Minasidou, E., & Papadatou, D. (201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Revised Death attitude profile in a Greek sample of nurses.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26(2), 264-27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ieling, P. J., Antony, M. M., & Swinson, R. P. (1998).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Trait version: structure and content re-examined.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7-8), 777-788.
- Bonnet, D. G. & Wright, T. A. (2000). Sample size requirements for estimating Pearson, Kendall, and Spearman correlations. *Psychometrika*, 65, 23-28.
- Browne, M. W. (2001). An overview of analytic rotation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1), 111-150.
- Brudek, P., Sękowski, M., & Steuden, S. (2018). Polish adapt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81(1), 18-36.
- Buckman, R. (1993). Communication in palliative care: a practical guide. In Doyle, D., Hanks, G.W.C. & Macdonald (Eds.),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 (p.51). Oxford: Oxford Medical Publications.

- Bugen, L. A. (1981). Coping: Effects of death educati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1(2), 175-183.
- Byrne, B. M. (1998). *Multivariate applications book seri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PRELIS, and SIMPLI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lements, R., & Rooda, L. A. (2000).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40(3), 453-46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Cole, M. A. (1978). Sex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9, 139-147.
- Conte, H. R., Weiner, M. B., & Plutchik, R. (1982). Measuring death anxiety: Conceptual psychometric and factor analytic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75-785.
- Cozzolino, P. J., Blackie, E. R., & Meyers, L. S. (2014). Self-related consequences of death fear and death denial. *Death Studies*, 38, 148-422.
- Cruzado, J. A., Prado, C. I., Pujalte, E. C., Wong, P. T. P., Eisenbeck, N., & Carreno, D. F. (2022). Spanish vers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Translation and validation into Spanish.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0, 1-14.
- Curran, P. J., West, S.,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zutter, J., Soenens, B., Luyckx, K., Bruyneel, S., Bansteenkiste, M., Duriez, B., & Hutsebaut, D. (2008). The role of religion in death attitudes: Distinguishing between religious belief and style of processing religious contents. *Death Studies*, 33(1), 73-92.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 Frank, V. E. (1965). *The doctor and the soul*. New York: Knopf.
- George, D., & Mallery, P. (2010).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0th edi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 189-212). New York, NY: Springer New York.
- Ho, A. H. Y., Chan, C. L. W., Chow, A. Y. M., Pon, A. K. L., & Ng, S. M. (201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C-DAP-R)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Illness, Crisis, & Loss*, 18(2), 95-110.
-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R.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1(1), 53-60.
- Hu, L. T., & Bentler, T.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8(1), 1-55.
- Iacobucci, D. (2009).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Fit Indices, sample size, and advanced topic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0(1), 90-98.
- Jansen, J., Schulz-Quach, C., Eisenbeck, N., Carreno, D. F., Schmitz, A., Fountain, R., ... & Fetz, K. (2019). German version of the Death attitudes profile-revised (DAP-R-GR) -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towards death. *BMC Psychology*, 7(1), 1-11.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öreskog, K.G. & Sörbom, D. (1988). *LISREL 7 -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2nd ed.). Chicago: SPSS.
- Kastenbaum, R. (1979). *Human developing: A lifespan perspective*. Boston: Allyn & Bacon.
- Kopp, S. W. (2009). The Influence of death attitudes and knowledge of end of life options on attitudes toward physician-assisted suicide.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58(4), 299-311.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 Kumabe, T. (2006). Psychological study of Japanese attitudes of life and death - 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do death. *Health Psychology Research*, 19, 10-24.
- Linley, P. A., & Joseph, S. (2005).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following occupational death exposur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6), 751-758.
- Machado, R. S., Oria, M. O. B., Fernandes, M. A., Gouvêa, M. T. O., & Silva, G. R. F. (2019). Translation and cultural adaptations of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DAP-R) for use in Brazil. *Text and Context Nursing*, 28, e20180238.  
<http://dx.doi.org/10.1590/1980-265X-TCE-2018-0238>.
- Malliarou, M., Sarafis, P., Karathanasi, K., Serafem, T., Sotiriadou, K., & Theodosopoulou, E. (2012).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Validation of Greek version. *Hellenic Journal of Nursing Science*, 4, 14-26.
- Marsaglia, G., Tsang, W. W., & Wang, J. (2003). Evaluating Kolmogorov's distribution.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 1-4.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Princeton, N.J: Van Nostrand.
- McMordie, W. R. (1981). Religiosity and fear of death: Strength of belief system. *Psychological Reports*, 49, 921-922.
- McMordie, W. R., & Kumar, A. (1984). Cross-cultural research on the Templer/McMordie Death anxiet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4, 959-963.
- Muthen, L., & Muthen, B. (2013). *Mplus 7.1 [Statistical program]*.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Neimeyer, R. A., Wittkowski, J., & Moser, R. P. (2004).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death attitudes: An overview and evaluation. *Death Studies*, 28, 309-340.
- Pollak, J. M. (1979). Correlates of death anxiet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Death*

- and Dying. 10, 97-121.
- Preacher, K. J., Zhang, G., Kim, C., & Mels, G. (2013).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model selection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8*(1), 28-56.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3.
- Revenco, C., & Idordanescu, E. (2015). Romanian version of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questionnaire. *Romanian Journal of Experimental Applied Psychology, 6*, 97.
- Robbins, R. A. (1994). Death competency: Bugen's Coping with death scale and death self-efficacy.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49-165). New York: Routledge.
- Robbins, P. J., & Wood, K. I. (1984). Fear of death and physical illness: A personal construct approach. In F. Epting & R. A. Neimeyer (Eds.), *Emergent theories of aging* (pp. 214-216). New York: Springe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harma, N. (2015). Perception of life and death in Jap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8), 30-42.
- Smith, D. K., Nehemkis, A. M., & Charter, R. A. (1983-1984). Fear of death, death attitudes, and religious conviction in the terminally il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3*, 221-232.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Templer, D. I. (1970).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82*, 834-859.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an Vaerenbergh, Y., & Thomas, T. D. (2013). Response Styles in Survey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of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Reme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5*(5), 195-217.
- Wong, P. T. P., Rec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 Yalom, I. D. (2008). *Staring at the Sun: Overcoming the terror of death*. San Francisco: Jossey-Bass.
- 원고접수일 : 2023. 02.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4. 24.  
게재확정일 : 2023. 05. 04.

## Validation of the Korean-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Juyong Oh<sup>1)</sup>

Doyoun A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up>2)</sup>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and Paedology, Hanshin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It investigated th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AP-R (K-DAP-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the K-DAP-R comprised five factors: fear of death, death avoidance, escape acceptance, approach acceptance, and neutral acceptance. In addition, it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nd generally good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except for the approach acceptance factor. Fear of death and death avoidance fact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 neutral acceptance fact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se two factors, but the approach and escape acceptance factor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ear of death factor.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ar of death or neutral acceptance factors between the age groups. In addition, males showed a higher level of fear of death than females. The escape acceptance fact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rait anxiety,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attitude to accept death in order to avoid present suffering” may be related to suicide risk. Along with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future directions for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death attitude, fear of death, neutral accept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of death*

---

† Corresponding Author : Doyoun An /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and Paedology, Professor. / Hanshin University. 8225, 137, Hanshindaegil, Osan-si, Gyeonggi-do / Email: psydoyoun@hs.ac.kr.